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도전하는 인생

성경: 요한복음 14장 12-18절

Tag: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 14:12-18)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다.

벋속의 아기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배를 빠져나와 바깥 세상으로 나온다.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인생은 도전으로 시작된다. 그 첫 번째 도전에 성공해서 이 세상에 살게 된다. 물론 대부분의 고통을 엄마가 감당하지만.

아기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은 엄마 젖꼭지를 찾아 힘차게 빠는 것이다. 아주 오랫동안 해야 할 일이다. 대부분의 아기들은 잘 해낸다. 처음 미션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다. 역시 대부분의 수고로움은 오롯이 엄마의 몫이다. 그래서 아기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잠을 잘 잔다.

그리고 나서 뒤집기, 기어다니기, 걷기, 뛰기, 유치원 다니기, 엄마의 품을 떠나기 등등 모든 것이 도전이다.

(모세 엄마의 엄마 품 떠나기, 딸 떠나 보내기...)

인생은 도전에서 시작해서 도전으로 끝난다. 마지막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큰 도전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잘 죽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자. 대신 멋있게 죽도록 준비하자. 태어나는 것보다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 태어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달리 태어났다 하더라도,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많이 달려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

죽을 힘을 다해 죽음을 예비하라!

세상에는 도전을 도와주는 것도 많지만, 도전을 막는 것도 많다.

어느 인생이고 그렇다. 어떤 사람은 도전하고 싶은데 건강이 걸림돌이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 신체적 장애가, 학력의 장애가, 정신적 장애가, 부모가, 자식이, 사회적 인식이, 나라가, 친구가, 세월이... 등등 도전을 방해하는 요소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모두 그렇다. 형편과 가짓수가 서로 다를 뿐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며칠전 18세 인도 과부의 다큐멘타리를 보게 되었다. 인도의 켈커타 지역은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죄인이 되는 지역이 있다. 그녀는 겐지스 강에 가서 참회의 목욕을 하고, 흰옷을 사 입는다. 여인이 흰옷을 입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인 것을 의미한다.

‘크리슈나’ 성지 ‘브린다반’에 있는 과부들을 위한 기도원에 들어가 평생을 지내야 한다. 사회적 율법이 그녀의 새로운 인생 도전을 원천 봉쇄하고 있었다. 얼마나 기가막힌 인생인가?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의 가능성을 완전히 펼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틀림없는 인간의 실존이고, 현실이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꿈을 버리지 못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바라는 것이 있다. 소망이 있다. 갈망이 있다. 끝없이 좌절을 경험하고 현실에서 수많은 벽에 부딪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건디면서 이루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다. 왜일까? 왜 인간은 포기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일까? 수많은 좌절이 그 꿈을 작게하고, 망가뜨리고, 변형시키고, 변질시키고, 미련으로 마음 창고속에 처박아두어도 왜 잊혀지지 않고, 꿈속에 나타나고, 치매가 진행되면서도 본질의 자아실현을 추억하는가?

그것은 실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본질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되어야 하는 나 자신이, 나의 본질이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정한 나 자신이다.

다만 본질이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간혀 있을 뿐이다. 마치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간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율법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분단 현실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닭장 같은 교육환경이, 너무 높고 긴 성공 사다리가, 잘 개발되지 못한 능력의 한계 등등이 진정한 나의 본질이 발현되는 길을 방해한다.

그러나 아기가 결국 엄마의 탯줄을 끊고 태어나듯이, 모든 인생은 자신의 본질이 발현되는 길을 걷게 된다.

인간을 실존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제대로 자신을 현실 세계에서 실현(;발현)시키지 못한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자신의 본질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 (자아실현)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등 동물일수록 본능적이고, 태생적이다. 그러나 인간은 고등동물일 뿐만아니라, 양육되는 존재다. 인간은 태어나서 방치되면 하등동물에 불과하지만, 그가 양육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이 되는 특별한 존재이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텃줄을 끊을 수 없다.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한다. 언어를 배우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놀라운 발현이 시작되는데, 스스로 언어를 습득하지도 못한다. 어머니로부터 말을 배우면서 영혼이 성장한다.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실현되어가는 존재인데, 모든 인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며, 모든 죄인들의 구속자는 예수님이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스승은 성령님이시다.

실존적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모든 인생이다 그렇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교적 우위 때문에 약간의 안도감만 맛볼 뿐, 올라갈수록 불안감도 높아질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자에게만.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14:1)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가 나를 도우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뿐만 아니라 나를 진정한 나로 만들어주시길 원하신다. 나보다 더 내가 잘 자라기를, 잘되기를, 성공하기를 원하신다. 왜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본질을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죄악과 율법에 갇혀 지내는 자녀들을 보다 못해,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들을 구원하고, 그 거짓에서 끄집어 내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다. 죄의 형벌과 저주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체적인 복을 베풀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 (그런데)그래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14절에는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절은 항상 말씀하시는 것인데, 14절 말씀을 위한 계명을 주셨다. 14절이 가능하게 되는 유일한 조건이 15절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성령님을 사랑하라.)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같이 사랑하라.

-16~18절 말씀은 성령님을 보내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다.

도전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도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
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사도행전 17장 1-14절

Tag:

1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4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6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7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8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9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10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12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13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뢰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14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행17:1-14)

- 바울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 그는 계속되는 실패 중에서도 계속해서 도전하였다.
- 그의 실패는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 어느정도의 성공이었다.
- 그는 미완성인채 다른 도시로 도피하였다.
- 그러나 그러한 중에 믿음이 신실한 자들을 얻을 수 있었고, 덕분에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다.

-바울의 선교적 태도에 대해서는 과격하다 평가할 수 있는데,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했다. 율법주의가 발달할수록 과격한 심판을 통한 정죄가 통용된다.

(과거 성경시대, 현재의 이슬람, 인도, 과거 조선의 분위기, 현재 북한, 현재 남한은 그래도 덜한 편)

(율법주의가 약화될수록 인간 개인의 자유, 인권이 높아지고, 정죄도 너그러워짐. 부작용은 파렴치도 버젓한 체를 하는 것이 용납됨. 그들은 멍치는 현상이 있음. 그래서 나중에 판이 깨짐.)

현실을 직시하는데 유능하다 :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고 뚜렷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들은 결함을 포함한 자신의 인간본성을 받아들인다. 다른 사람들의 결점과 인간 조건의 모순을 유머와 관용으로 받아들인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믿는다 : 독립적이다. 여론이나 관점에 따른 문화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발적이다 : 진실된 혼자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지내는 것보다 낫다.

문제 중심에 있기 : 대부분의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연구는 삶이나 과업, 자신의

문제로부터 자신을 '넘어' 추구하는 삶을 수행하는 목표가 있었다.

자치권 :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들은 외부의 권력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들은 지략가이며 독립적이다.

지속되는 감사 :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들은 기초적인 삶에 대한 감사를 계속 상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몰이나 꽃이 매번 처음인 것처럼 강렬하게 경험된다. 예술가나 아이들과 같은 '관점의 순수함'을 가졌다.

국제적인 관계 :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들의 국제적인 관계는 깊은 사랑의 끈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독이 편하다 : 그들의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에도 불구하고,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들은 고독이 가치있다고 생각하며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

유머에 관대하다 : 스스로에게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

절정경험 : 모든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연구에서 절정경험은 자주 나온다. 절정경험은 황홀한 느낌, 화합, 그리고 깊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

사회적 공감 : 인류애를 갖고 있다.

적은 친구 : 적은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많은 사람들과의 얕은 관계보다 낫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이런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자기를 실현하려는 자들은 보통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고,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점점 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적, 개신교적 영성이다.